

19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질의응답,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안내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9월 20일(목)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2019년도 목사고시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제반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 이어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25:29 말씀을 본문으로 '주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돌보신다"고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고시생들을 축복했다. 김인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고시위원 권우석 목사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



고시위원회 서기 이석호 목사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임원을 선출하고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문제집 발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목사고시는 2019년 2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 교회성장학 등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성경고시는 2019년 2월 12일(화)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의 과목에 대해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되어 평가를 하게 되며 설교 및 면접은 성경고시 이후 실시된다.



동부전선 을지부대 GOP 근무장병 위문

예하성 군선교위원회

교단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9월 13일(목) 민족 교유의 평정인 추석을 앞두고 철통 방위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동부전선 을지부대 GOP대대를 방문하고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형제의 따뜻한 미음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국방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군선교위원들은 군부대 내 참사관인교회에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이한권 목사의 대표기도, 박순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고전 4: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과 병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근무에 실패한 지휘관과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국군장병



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천만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군 복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군선교위원회에서는 준비해간 위문품을

을 전달하고 장병들과 담소를 나누었으며 9월 18일(화)에는 1200고지 이상의 고지대 통신중계소 근무 장병들을 찾아 줄연을 직접 만들어 주며 기타 위문품들을 전하고 돌아왔다.

‘언약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멍’



조용목 목사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히 11:11~12, 17~22)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요지부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성도의 신분에 잘 어울리는 ‘멋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겪고 많은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러한 일에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먼저, 사라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이라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젊었을 때에도 잉태하지 못하였는데 나이 90이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하대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습니다.

반성할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들은 믿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믿음이 시들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가담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기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를 사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믿음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현실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부르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믿음을 주셨지만 그 동안

연단을 받아 믿음이 완전해져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단 위에 올려놓은 이삭을 향해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에 대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20절에서 22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축복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답게 행하는 멋진 일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

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그 날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는 멍과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축복하는 멍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한기총 신천지대책위 보강키로

회개집회, 선교집회 등 추진 박차...미주총연 설립 긍정적 검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제29-6차 임원회가 지난 9월 27일(목) 열려 미주 한기총 설립을 모색하는 등 하반기 행사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는 29명 참석에 9명 위임으로 성수되어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뤄졌다.

'미주 한기총 설립의 간'을 다룬 한기총은 워싱턴큰부리교회 나광삼 목사 외 70여명의 준비위원들의 요청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연(가칭)' 설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1월 25-30일 캄보디아 선교집회와 12월 20일 한국교회의 밤, 10-11월 전국 성령화개운동 집회 등 한기총이 추진하는 행사들에 대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가 행사 계획과 예산, 방법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신천지 대응의 간'에서는 각 회원교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신천지 대책 위원 및 신학 교수 등을 추가로 추천받아 현 신천지 대책위원회를 보강키로 했으며, 법적 대응 및 언론 전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회위원회 구성의 간'으로는 한기총 내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키로 했으며, 김노아 목사 징계의 간 역시 조사위원회로 넘겨 절차에 따라 진

행하기로 결의했다. '채정 보고의 간'은 현재까지의 한기총 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이뤄졌고, 회원교단(단체)과 임원, 위원장들은 회비를 잘 납부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기타 안건으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한기총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애장개혁 정학재 목사를 공동부회장으로 추가 임명했다.

한국교회 일천만 회개 기도성회

한기연, 오는 10월 28일(주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9월 13일(목) 오전 11시 한기연 회의실에서 제7-6차 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28일(주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일천만 회개 기도성회'를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와 공동개최해 한국교회 회개 각성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기연은 '한국교회 일천만 회개 기도성회'가 신사참배 80주년인 올해 한국교회가 회개와 각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운동으로 뿌리내리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한국교회 일천만 회개 기도성회'를 통해 신사참배 80주년을 맞아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동성애와 NAP, 양심적 병역거부 등 한국교회에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전체 한국교회가 힘을 결집해 막아내는 데 한기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형주 긴급현안에



연합기관들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TF를 조직하기로 하고 이를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임원회는 또한 새 회원교단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총회장 이서 목사), 새 회원 단체로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을 각각 받아들일키로 하고, 실행위와 임시총회에서 정식 인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권 정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 및 운영세칙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단과 개인에 대해서

는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권을 제한키로 했으며, 제8회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 위원선정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한기연은 또한 한기위를 앞둔 지난 9월 19일(수) 탈북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서울시 티투어를 광화문과 경복궁, 전쟁기념관 등지에서 진행했으며, '행화의 섬, 제주 - 화합과 치유를 위한 큰 울림' 행사를 11월 20-22일 제주에서 다문화가정 탈북민, 노숙인, 난민 등 소외계층 1천여 명을 초청해 진행하기로 했다.

성서공회, 도미니카공화국에 성경 기증

연동교회와 미국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9월 13일(목) 오전 11시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 미국 남가주 새소망교회(담임 김성원 목사)의 후원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스페인어 큰 글자 성경 2000부와 어린이 그림성경 11,040부를 보내는 성경 기증

식을 가졌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임금 불평등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각 지역 교회와 가정

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에는 성경을 구입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성경이 부족하며 기독교 교육을 받은 교육자의 부재로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의 불화와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미니카성서공회는 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성경을 제공하고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경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신체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 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이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제14회 신학세미나 개최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주제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9월 11일(화)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란 주제로 제14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수신학 확산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애장동연합장 장시광 목사의 인도로 애장(합동세일)총회 김진 목사의

대표기도, 기독교대한자유김리회 강성은 목사의 성경봉독,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송, 새일꾼선교회장 박승주 목사의 '주 안에서'란 제목의 설교, 이재몽 장로의 봉헌찬양, OBC총회장 분순자 목사의 봉헌기도,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와 찬송, 성경총회장 김승현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홍교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신학공부가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배운다면 교회가 살아난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먼저 잘 배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자"고 말했다.

2부 세미나는 김학위원장 김주상 목사의 사회로 애복총회 이선한 목사의 기도, 애영수 박사와 홍세준 박사가 강의했다.

'영계의 이중 연계성'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애영수 박사는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임종 때 3번 맹세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애연적 축복을 했다."며, "하나님은 아담을 격려하기 위해 아담이 이



기침 제108차 총회 박종철 목사 총회장 당선

포상과 징계 규정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

기독교한국총교회(제8차 총회)가 지난 9월 17일(월)경주해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총회장에 박종철 목사(새소망교회)가 당선됐다.

박 목사는 세 번째 총회장에 도전한 것으로 총회원들의 지지를 얻어내 두 번째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리했다.

1차 투표결과 총176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박종철 목사가 906표, 고명진 목사가 853표를 얻었으나 2/3이상 득표가 없어 2차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2차 투표에서는 1707명 중 박종철 목사가 904표, 고명진 목사가 793표를 얻어 박종철 목사가 총회장에 최종당선됐다.

박종철 목사는 "교단이 하나 되고 화합하



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단을 세울 것"이라며 "교단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가침 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 주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총회 규약제8조 4항과 제8조 7항, 제25조 4항, 제25조 5항, 제27조에 대해 각 항별로 찬반을 묻고 가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규약개정안은 제8조 4항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됐다.

예장합동선목, 총회장에 김국경 목사 재선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총회'란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목총회(총회장 김국경 목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총회'란 주제로 지난 9월 17일(월) 영남이긴간향교회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장에 김국경 목사를 재선임했다.

총대들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선교와 목회(선목)를 위한 사명에 충실하고 분부하신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확고히 했다. 이들은 특히 △개혁주의 정통보수신앙을 고수할 것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와 목회적인 사명을 다할 것 △영적지도자로서 본을 보이며 앞장설 것 △인류에 꿈과 희망을 주며 사랑을 실천할 것 등을 다짐했다.

개회예배는 나도인 목사의 사회로 김상진 목사의 대표기도, 석광수 목사의 성경봉



독에 이어 총회장 김국경 목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란 주제로 5:1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김미숙 목사, 정진인 목사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총회와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박찬봉 목사의 봉헌기도, 조규하 목사의 총회선언문 낭독, 총무 이유은 목사의 광고 후에 양종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

3부 사무처리회에서는 절차보고, 전 회의록 낭독, 사무경과보고, 지시, 사절위원 선정 등을 원활히 마치고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신 인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국경 목사(목양교회),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충민교회), 김경인 목사(새누리교회), 문영호 목사(연세교회), 오윤주 목사(예수생명교회), △서기 조규하 목사(인현교회), 부서기 신영자 목사(스마일교회), △회계 박찬봉 목사(승리교회), 부회계 신희숙 목사(헤브론교회), △회록서기 문순애 목사(한소망교회), 부회록서기 지문경 목사(영원교회), △총무 이유은 목사(행복생교회), △기획실장 윤영순 목사(예수생명교회), △감사 박효순 목사(새생명교회), 김종환 목사(다사랑교회).

그교협, 신임회장에 임종원 목사 선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환원운동에 주력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제83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8일(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되어 임종원 목사(명문그리스도의교회)를 신임회장에 추대하고, 예수님의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는 환원운동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동 협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실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이 아닌 회부에서 NAP 반대 운동을 이끄는 교단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벌이기로 결의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고, 반대 서명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신임회장 임종원 목사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산하 교회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교회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결집하겠다."면서, "이번 회기에는 한국교회와 더욱 하나 되는 사역을 펼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 사회에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김생수 목사의 사회로 홍사균 장로의 기도, 신조광 목사의 주님의 뜻 성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란 제목의 설교, 최만준 목사의 축사, 한은선교회 반인종 목사에게 개척교회 공로패 수여, 강보석 목사의 광고, 김탁기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가위 맞아 서울역 노숙인 사랑나눔 행사

한기연, 목동능력교회 청년부 여전도회원들 색소폰 연주, 송편 대접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9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센터인 신성교회(담임 김원일 목사)에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외

롭게 지내는 서울역 노숙인과 쪽방촌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한기연 임직원들과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시무하는 목동능력교회 청년부 여전도회 회원들 30여 명이 봉사해 참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3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색소폰 선교단의 연주와 연합 찬양단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점심 식사와 함께 추석을 맞아 미리 준비해 간 송편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을 대신해 인사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한기연이 올해에만 4번째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매달 한번씩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 하겠다"고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다.



교단 부흥사회 단합대회 및 태국 선교지 탐방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 12명의 임회원들은 지난 9월 16일(주)부터 21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태국 김학봉 선교사의 선교지역지와 태국 하나님의성회 소속 신학교를 탐방하고 집회와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번 탐방을 통해 현지 선교사의 사역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구원과 생명의 사랑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으며 사역지마다 선교비와 후원금을 전달하여 현지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또한 부흥사들 간에도 함께 외국을 여행하며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욱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태국 하나님의성회 신학교 앞에서



▲사뭇쁘라간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

▲태국 하나님의성회 신학교에서 격려금 전달



◀랏툼깨우교회에서 선교비 전달



태국 안디옥교회(담임 김학봉 선교사) 앞에서

월례회 및 제39회 목회자기도회 개최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9월 1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은혜교회에서 월례회 및 제39회 목회자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월례회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인도로 서기 조길수 목사의 기도예로 이어 증경회장 조원채 목사의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어서 회부처리를 마치고, 조은주 목사의 인도로 제39회 목회자기도회를 가진 후 순복음은혜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혼합 식사를 통하여 회원 모두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오는 10월에 광주지방회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이 부부 동반 수양회를 제주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갖기로 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마음들이 부풀어 있는 모습들이었다.

이번 부부 동반 수양회는 지방회장 최정식 목사가 비행기 티켓을 일체 전담함으로 모

든 회원들이 큰 부담 없이 다녀오게 되었다.

또한 광주지방회에서는 다음 달 기도회는 40회가 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가져 볼 계획이다.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아멘순복음교회)는 지난 9월 17일(월) 오전 10시 이목순복음교회(담임 이문근 목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김용 목사(증평세희명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

기도 김경준 목사(순복음 후영교회), 강사소개에는 민병훈 목사(예광 순복음교회)가 맡아 수고하였다.

이날 강사인 박경서 목사(서울 한빛 감리교회)는 창세기를 통한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사역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오전 강의를 마치고 이목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식사와 간식을

함께 나누었고, 이어 오후 3시에 강의를 마친 다음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의 인사와 마무리 기도회로 세미나를 마쳤다.

세미나에 이어 곧바로 지방회 체육위원회(위원장 김윤용 목사)의 주관으로 친선 탁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탁구대회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명성교회 이전예배 및 월례회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일선 목사)는 지난 9월 18일(화) 명성교회(담임 최명자 목사)이전 예배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침례교회는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기도와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가 빌 3:17-21 말씀을 본문으로 '비율의 권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비율은 사도였고, 신학자이며, 복음증거자였다. 무엇보다 비율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심 있는 바르신앙을 가졌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였음을 기억하고 고린도교회와 빌립보교회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충성심 있는 목회자가 되자"고 축원하였다.

설교 후에는 김여호수 목사(조지원명



강순복음교회)의 축사와 임영신 목사(순복음부활교회)의 권면과 오승욱 목사(전안서복교회)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 재무 김영희 목사(등대교회)의 헌금기도와 류승창 목사(순복음어울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 부서 보고와 지방회건의 사항을 토의 처리하였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후 명성교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떡과 선물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함께했다.

월례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반인홍 목사)는 지난 10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송도순복음교회(담임 반인홍 목사)에서 월례회모임을 갖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강태순 목사의 인도로 예배 전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 2부 1부 예배는 부회장 김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최월성 목사의 대표기도, 박진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마 22:34-40 말씀을 본문으로 '경천예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회원들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사회자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도회는 김라함 목사의 인도로 첫째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둘째 교단발전과 인천지방회를 위해, 셋째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 하였다.

기도회 후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인도

로 월례회 각종 회부를 마치고 송도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기쁨으로 월례회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정 형 기 목사

· 대소우리교회 원로목사
· 즐거운우리집요양원 이사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못 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병은 내 믿음을 파괴하여 축하게 만듭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 16: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과 손을 잡은 사람도 함께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단이나 신전지도 경계해야 하지만 교만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한숨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잠 28:9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기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병에 걸리면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시 101:5 “그 이웃을 그릇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3절에 “소는 그 입지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해도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며 듣지 않으십니다.

1. 이 교만병은 자신이 모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자신이 부족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로 압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차며 환자에게 물어보세요. 너 차며 환자지 물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병자에게 너 미쳤지 물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분동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3단계로 3개월은 자기도 모르고 3개월 지나면 자신이 알고 6개월 지나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붓드러지고 얼굴이 비뚤어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교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고 얼마 지나면 자신만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회개치 아니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까지 알게 됩니다. 계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7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 거뒀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데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은혜도 능력도 찬양도 봉사로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교만한 사람은 내 고집 내 주장만 내 세우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은혜주시고 아무나 복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받고 축복받고 능력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못된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출 33: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약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 교만병이 들면 깨닫지 못합니다.

전 8:17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

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니니 비록 지혜자가 이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사 6: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호 7:9 “저는 이방인에게 그 함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찌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 이 교만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니” 말씀은 예리한 칼입니다.

렘 23:2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니”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깨뜨려야 합니다. 성경말씀 통해 교만의 암 덩어리를 수술해야 합니다. 완악하고 돌 같은 단단한 덩어리를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야 합니다.

2)정과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청년 때부터 암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기해서 매일 읽으면서 살아감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

이 되었습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피흘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히 12: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몸부림 쳐 봤지만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겸손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내 몸을 친다는 것은 금식하며 땀속까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4)자신은 교만한자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랬다 교만을 떨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마냥 잘 믿는 척 잘 아는 척 은혜받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빌 2:3-5 “아무 일든지 다함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 하셨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동 정

나사렛대·천안시 '리빙-랩' 협약



김형조 신학협

총장, 김형조 신학협 력단장, 김수진 장벽

없는의사소통원구소 소장, 구본영 천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예종연 사무실 확장이전



강관하 목사

건강한 교단의 연합으로 바른 신앙 교회 제모습 찾기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합회(대표회장 강

용희 목사)가 지난 9월 20일 사무실 확장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는 '탁월한 통찰력'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윤학원 장로 60주년 음악회



윤학원 장로

우리나라 합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킨 '합창의 대부' 윤학원(80·전 중앙대 음대학장) 장로가 자신의 음악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지난 9월 4일(화)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었다. 윤 장로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소신 아래 우리나라의 전통 선율을 합창에 접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정희정 교수 후즈 후 등재



정희정 교수

백석문화대 학교 사회복지학부 정희정 교수는 세계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도 판에 등재됨과 동시에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부장으로 재직 중인 정 교수는 코칭전문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신학대학교에서의 동성애자 입학 제한을 한국대학교협의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

최근 예장 통합 소속의 호남신학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난 7월에 넣었다가, 한 달 만에 제외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한국대학교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문제를 삼음으로 지워졌다고 한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중요 관심사에 대하여 대학 간 상호 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 공공성,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단체이다.

그렇다면, 호남신학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면서, 기독교 교육과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학교인바, 당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자'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호남신대가 학생모집 요강에 동성애자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지난 해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 총회가 결의한대로 '동성애자를 학교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의에 따른 것인데, 이를 대교협이 가로막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학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교육과 신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의 배출이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과정에서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는것은 당연하다

이는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헌법 제21조)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제어할 권리가 대교협에 있는 것인가?

이렇듯 신학대학의 존립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소속된 교단과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

서도 안된다.

대교협은 그 단체가 세워진 목적대로, 학교 간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교류하면 되고, 신학대학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예장 통합교단은 분명한 교단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호남신학대학교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과 도덕과 윤리와 지질에 관한 것을 결코 양보할 수는 없다고 본다.

홈페이지: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경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4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동성애를 의무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의무교육하려는
법안을 또 다시 발의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근거하여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결사반대한다고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밝혔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군인, 공무원까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 조정해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교육 종합교육을 수립하여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자체에서 인권 관련 각종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자치 사무가 아니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각종 공공기관에는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동반연과 동반교연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을 결사반대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 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금급·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복지유관단체 등의 모든 국가기관 등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를 의무교육하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교육지원법은 그동안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예산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물론 모든 공무원, 군인 등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다. 198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될 때에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3년간 국회에서 법안을 몇 번 수정하는 가운데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 없이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에 슬쩍 포함되었다. 심지어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고 한다.

국민적 논의나 합의 없이, 또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토론 없이 성적지향(동성애)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동안 7번이나 시도했으며, 군대 내 동성애를 삭제하기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했고, 2017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2002년 국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 권고하였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기를 권고하였다. 2009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였으며,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인권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동성애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결과와 각종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들의 동성애에 관한 인식은 나빠도,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2017년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지만, 10~20년 후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동성애 및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동성애의 선전성에 관한 2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심층 조사한 존스 홉킨스대학이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2015년 4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서는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경로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경로라고 발표하였다. 국내 의료진들이 중심이 되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3년 동안 전국 19개 병원에서 진료와 받고 있는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8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실시되었다. 코호트 연구 결과가 2018년 4월에 발표되었는데, 에이즈 감염자의 60.1%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18-19세에서는 감염자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임명란은 최영에 국가인권위원장은 2003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재직 시절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매체심의기준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하였고, 그 이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였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는 달리 매우 많은 성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의 21.6%는 평생 동안 101-500명을, 약 26%는 500명 이상의 성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 유명 동성애자 연예인은 공개 강연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만 3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들의 많은 성적 파트너로 인해 10대, 20대의 에이즈 확산은 매우 심각하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천적이지 않고,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 욕망인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동성애는 결코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동성애를 인권에 포함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성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은 유승민 의원 등이 2014년 발의하여 강력한 국민적 반대와 철회된 적이 있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의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지분위원회가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 헌법개정을 시도하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광주 금남로에 2만 명의 국민들이 모였고, 대전 시청 앞에 3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는 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의무교육하려는 법안을 또다시 발의한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인권교육지원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9월 27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신천지 사교집단 안산 스타디움 허락” “사교집단 비호하는 배후 실제 밝혀내어 사교집단과 결탁한 탐관오리와 같은 세력 척결” 강력 주장

한기총 분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장 홍계환 목사가 사교집단 신천지가 개최하는 교주 우상놀음 평화만국회의의 대관을 불허하라는 민의에도 불구하고 궤변으로 대관을 허락한 인천시설관리공단의 행태에 피해자들의 공분이 채가시기도 전에 대관을 불허했던 안산시마저도 돌변하여 행사대관을 허락하여 분노하고 있다.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에서는 논쟁을 통해 사교집단을 비호하는 배후의 실체를 밝혀내어 사교집단과 결탁한 탐관오리와 같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논쟁 전문이다.
한기총, “신천지 사교집단 안산 스타디움 허락” 총격 “취소 반복해 한 배후가 누군가?”

사교집단 신천지가 개최하는 교주 우상놀음 평화만국회의의 대관을 불허하라는 민의에도 불구하고 궤변으

로 대관을 허락한 인천시설관리공단의 행태에 피해자들의 공분이 채가시기도 전에 대관을 불허했던 안산시가 17일 오후 돌변하여 행사대관을 허락했다고 한다.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 마치 신천지의 사교적 기만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지 짚어지는 가슴과 함께 비분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는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국민을 기만한 이번 안산시의 작태는 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설공단의 행태에 그 배후가 궁금했는데 이번 안산시의 반복을 통해 그 배후의 실체가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신천지와의 싸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시급한 것은 이 같은 사교집단을 비호하는 그 배후의 실체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어 사교집단과 결탁한 탐관오리와 같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천지대책위원장 홍계환 목사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 개최 미래, 목회, 선교-인공지능 시대와 복음 논의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 IWMCI(International Wesleyan Ministry Conference)가 9월 18일~20일까지 광림세미나하우스와 광림사회봉사관에서 열렸다.

미래, 목회, 선교-인공지능 시대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40여 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 강사로 금주섭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WCC세계선교 및 전도위원회 국장), 마틴 퍼시(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학장), 폴 벤티 사무엘(옥스퍼드 선교대학원 학장), 전구천 박사(옥스퍼드 선교대학원)가 강단에 섰다.

미래 목회에서 빠질 수 없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가져올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며 우리

실생활에 비껴 다가갔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국제 정치적 패권 속에서 지배자의 위치를 설 수 있도록 우리들도 화줄 천금 같은 기회라고 말할 하지만, 초인간성, 비인간화,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가 기독교의 선교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인공지능을 독점하고 통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야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할만한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9차 조찬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평등 정책 반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연합 미스바기도회
한기총과 함께 10월 14일 개최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지난 9월 29일(토) 오전 7시 광혜교회(담임 온재천 목사)에서 민족 복음화와 지역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

고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이슬람침투 저지를 위해, 성평등법 개악저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10월 14일(주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 호수공원에서 한기총과 함께 (본지 이번호 12면 참조) 나라의 안보와 복음전파를 위해 미스바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홍석용 목사의 대표기도, 고분 강상철 목사의 설교, 고분 김소윤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에서 강상철 목사는 엠 6:10-20 말씀을 본문으로 '한국교회는 깨어 있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영적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기도로 무장하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 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또 "특히 국가의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이 극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길 뿐이며 이때를 위하여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2부 보고회는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의 사회로 지문위 원인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활동보고, 시의원 현인배 장로의 시정활동보고, 아산시기독교연합회장 온재천 목사(공동회장)와 비른인권위원회 위원장 장현원 목사(부회장)의 상황보고 등이 이어졌다.

3부 기도회에서는 상임회장 이경팔 목사의 사회로 '민족복음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기연부흥과 발전을 위해', '성평등정책반대를 위해', '충남 충북 세종총연합회 미스바기도회를 위해' 황기식 목사

(공동회장), 정수희 목사(협동총무), 구자범 목사(부회장), 장현원 목사(협동총무), 이기연 목사(부회장)가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예하성 증경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매월 조찬기도회로 모여 기도하여주시는 회원들과 국정 및 시정 현안을 보고하여주시는 이명수 국회의원과 현인배 시의원, 연합사임보고를 위하여 힘쓰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장 대표회장 온재천 목사 등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격려한 뒤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부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희 결혼114는 하나님께 이 사업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던 중 미혼 남,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것이 국내 선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을 받고 전국에서 고생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을 지사장님으로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 지사장 자격

●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사모님 ● 장로님, 집사님 ● 믿음의 형제, 자매

■ 혜택

등록비 54만원(부가세별도) : 고객들이 부담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찾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음

- 남녀 매칭 문제 본사에서 전담 - 지사에서는 회원 등록만 전담
- 각 지역별 독점권 부여
- 지사 블로그 제작 지원
- 결혼 미팅파티 행사 지원
- 전국 기독교인 회원 보유
- 본사 새로운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특전 : 본사에서 전국 각 지사로 매달 공유 수당 지급

■ 지사 모집 지역

서울시	성동구, 용산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시	지사 계약 완료
인천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시	서구, 남동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울산시	중동구, 남구, 북구
세종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상담진행중), 남양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상담진행중), 광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상담진행중), 원주시
충 북	충주시, 청주시
충 남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상담진행중)
전 남	목포시(상담진행중), 광양시(상담진행중), 순천시
전 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경 북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경산시
경 남	진주시, 양산시(상담진행중), 김해시(지사계약완료),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창군
제주시	제주시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 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연합회대표회장



온재천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사무총장



강영구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후원계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충남도대표)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이심훈(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김원진 목사, 황기식 목사, 노선웅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김원진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임정대 목사, 차홍식 목사, 김기형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이덕희 목사, 홍석용 목사, 길성권 목사

김주섭 목사, 정병한 목사, 김형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재두 목사, 박성화 목사, 이기언 목사, 장한원 목사, 홍석용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회원 아산시 350교회 교역자

박성민 목사, 박성화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권필희 목사, 정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이의중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805937-04-007183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용재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법령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재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등용 목사 (세소침교회)	김용덕 목사 (명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법령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계영 목사 (세김교회)	임영환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오승욱 목사 (천안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명강교회)	백영재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신동수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대전순복음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김배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성남 목사 (대림법령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천교회)	박종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원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김종현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천주은혜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름교회)	김연옥 목사 (영복한신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송리교회)	홍현자 목사 (서광대평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광호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빛교회)	서법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우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스더 목사 (예수왕기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ACTS 신학과 기독교 문화·예술’ 포럼

문화 예술에 있어 ACTS 신학에 대해 금동철 김다니엘 교수 논문 발표

이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박사) 부설 ACTS 신학연구소(소장 한상화 교수)가 주최하는 제7차 ACTS 신학포럼이 오는 10월 15일(월) ‘ACTS 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을 주제로 경기도 양행 본교 강당에서 개최된다.

‘ACTS 신학포럼’은 ACTS가 신학공관 운동의 일환으로써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세미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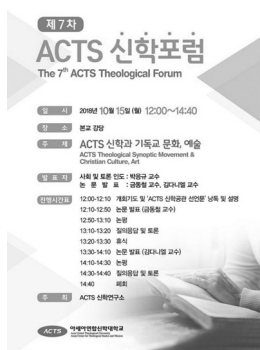
이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알리는 논문발표회로서 ‘ACTS 신학공관’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매 학기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토론되는 학술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다.

있다.

‘ACTS 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신학포럼에는 금동철 교수와 김다니엘 교수가 논문 발표자로 나선다.

박응규 교수의 사회로 개회기도 및 ‘ACTS 신학공관 선언문’ 낭독 및 설명으로 시작되어 논평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신학-신앙 운동이다.



세계선교협의회 9월 월례회 한소망교회에서 개최

제21차 필리핀 단기 선교, 11월 25일-12월 1일로 변경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선협) 월례회가 지난 9월 20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83-7번지에 위치한 한소망교회(단임 송미현 목사)에서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 1부 예배는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인도로 조희영 목사(풍성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송미현 목사(한소망교회)가 사 6:12 말씀을 본문으로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순양 목사(예수사랑선교회)가 헌금기도 후

김용현 목사(하나교회)가 ▲나라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세선협 부흥과 동남학원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선협 회원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 회장 한규섭 목사(남동제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회원점명, 회장의 개회선언, 황정희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후에 임양팀(임양실장 김경수 목사)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고, 총무 전순임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안전토의에서 10월 2일-3일 1박 2일로 한화 리조트 평창에서 단합대회, 부회장에 권은숙 목사(행복한교회)를 임명했으며 제21차 필리핀 단기 선교를 11월 25일(월)-12월 1일(토)로 변경하고 국내 항공(70만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울러 임양회원 영입에 힘쓰기로 하고 18명의 교사 유니폼제작을 위해서 후원자를 찾기로 결의하고 폐회했다.

회장 한규섭 목사 010-4716-9090, 총무 전순임 목사 010-2538-9026.

한기연, 탈북민 초청 서울시티투어

명절이 외로운 탈북민 위로, 여성위서 추석선물도 전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한가위를 맞아 탈북민 50여 명을 초청해 지난 9월 19일(수) ‘2018 한가위 탈북민 초청 서울시티투어’ 행사를 진행했다.

한기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 대부분이 새로운 사회 환경에 뿌리내리기 위해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꿈에 그리던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도 수도권 서울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추석 명절에도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서울의 고궁과 명소 곳곳을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탈북민과 여성위 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원에 모여

개회 예배와 추석선물 전달식을 갖고 약 7시간에 걸친 서울시티투어를 함께했다. 여성위서기 공선영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이혜경 목사(여성위 감사)의 기도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의 설교,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의 인사와 김효종 목사(공동회장)의 마침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설교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탈북민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시티투어를 진행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북한 땅을 떠나온 탈북민이나 남한에 사는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잠시 머무는 이방인들”이며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뷰티, ‘신수철리 마을축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위해 실시

국제뷰티구조개발 NGO 씨월드뷰티웍스(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9월 15일(토) 마포구 신수동주민센터(동장 조태영)에서 신수동 불우이웃돕기 ‘신수철리 마을축제’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뷰티서비스에는 최에스터 교수(신한대학교 뷰

티헬스사이언스학부)와 김주연 교수(서경대 미용예술학과)를 비롯한 미용대학교 학생들과 장민혁 사무총장(WBH)과 조서연 사무국장 윤종성 자원봉사팀장이 함께해 네일과 피부마사지 등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불우 이웃돕기 기금마련 행사를 통해 이날 수입금 전액을 신수동에 기탁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장현일 이사장은 “월드뷰티웍스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에스터 회장은 “월드뷰티웍스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공 대학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의 진짜 온상은 한겨레신문이었다!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 발표문〉

한겨레신문은 “동성에 난민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난 9월 27일 한겨레신문 1면에 게재하였다. 한겨레신문이 지목한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가짜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져, 한겨레신문이 오히려 ‘가짜뉴스’의 진짜 온상이 밝혀졌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로 지목한 50% 이상의 내용이 동성애 관련 내용이고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향한 강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어 이는 언론의 권력을 가지고 표현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은 대부분의 내용은 본인들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이러한 주장은 본인의 노선과 입장

과 다른 ‘반대의견’에 대하여 가짜라는 낙인을 찍는 프레임 씌우기에 가깝다. 한겨레신문이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려 하고, 반동성애 활동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은 언론이 가진 권력을 활용한 테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것은 최근 혐오표현 규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주장과 연결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통해 가짜뉴스 배포자로 지목한 25명은 개인적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급진 이슬람,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 등을 알려온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대한 합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 이하 한가모)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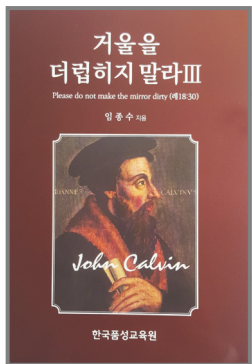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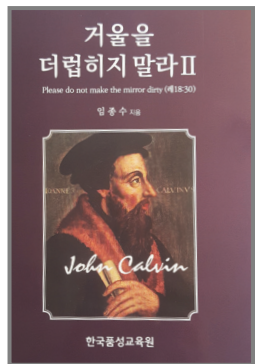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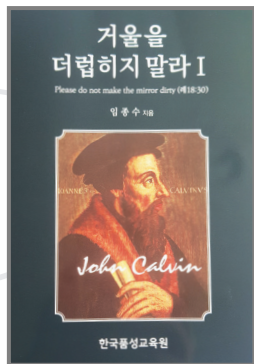
가짜뉴스 배포자로 지목된 피해자모임인 [한가모]는 한겨레신문사가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한 사실을 적극 알릴 것이다. 만약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사실인 것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사는 물론 이를 보도한 기자 개인 모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이와 함께 가짜뉴스라고 기사를 제공한 [뉴스앤조이] 등 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가모]는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모여 2018년 10월 2일 오전 10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인사) 연락처 010-6637-2469
■ (인사) 이메일: nahsl14@naver.com
2018. 10. 1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FIM국제선교회, 이슬람선교학교 개강

10월 20일~11월 17일까지 총 10강의 진행



현재 이슬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문제로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는 '이슬람 혐오증'으로 그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닐까,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유럽처럼 외국인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등 막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 사람으로 무슬림은 우리의 이웃이고,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 예수

의 지상명령을 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기독교인들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점이다. 현재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국내에서 강의, 훈련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유해석 선교사는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기독교와의 유사성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는 현재 한국교회뿐만이 아닌 한국사회에 이슬람에 대한 분별의 척도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이미 500여 년 전에 이슬람의 도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이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FIM국제선교회(이사장 천환 목사, 대표 유해석 선교사)가 10월 20일~11월 17일까지 "이슬람선교학교"가 을학기"를 수지에서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수지 만방샘목장교회(조상훈목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슬람 선교학교는 5주간 2강의씩 총 10강의가 진행되는데 유해석 선교사와 조직신학자인 김성봉 교수(한국성서대), 소윤정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A국에서 사역한 박종상 선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과정은 이슬람의 이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선교에 대해 관심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훈련비는 15만원이며 접수는 FIM국제선교회(1599-5591, www.fim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회복이 있는 은혜 나눔의 창, CTS <콜링갯>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 생방송으로 브라이언 박 목사의 말씀과 기도로 현대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CTS <콜링갯>이 10월을 맞아 다양한 특집을 진행한다. 먼저, 10월 3일 개천절에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시청자들과 전화연결을 하는 <디아스포라특집>을 진행했다. 평소 시청자 탓에 연결이 어려웠던 해외시청자들의 기도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성도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각지의 여섯 나라에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고 간절한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10월 8일과 9일에는 <시청자 특집 2부작>을 방송한다. 매일 평균 삼천 통의 기도요청 전화가 오지만, 정해진 방송시간 탓에 7명도 못 되게 전화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700회 가까이 오는 동안 너무 안타까웠다는 브라이언 박 목사와 제작진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그동안 전달된 시청자들의 기도제목들을 선별해 질병치유, 영혼구원, 신앙회복 등 다양한 키워드로 한 명이라도 더 기도로 드리겠다는 마음을 방송에 담는다. 또한, 그동안 콜링갯을 통해 연결됐던 시청자들 중에 변화된 사례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콜링갯 <시청자 특집> 편의 감동을 더 한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하고 뇌졸중까지 오고 신장까지 기능을 상실하여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약 3년 전, 요양보호사 제도를 알게 되어 하루에 4시간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사를 중에는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대소변을 치워야 되는 경우 또는 휠체어에 옮겨야 할 경우에는 요양사들이 이러한 환자들을 안 맡아주고 하도 왔다가도 오래하지 못하고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편하고 쉽고 더럽지 않은 환자만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1등급 받은 환자를 다시말해 대소변을 받아야 하고 밥도 먹여줘야 하는 환자들입니다. 지금 전세계 교회는 쓰나미같은 급류에 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물질화되고 있으며 신앙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은지 오래고 전도가 사라지니 영적지체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1등급 받은 환자를 살려내는 일이고 전도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밤새내는 일이고 육체는 일입니다. 오죽 했으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전도를 감당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갑을 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박영수 목사를 보면서 길에서, 터미널에서, 지하철에서 아파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워도 야광곳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족세트 전도를 전파하며 전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도에 부담을 느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사람을 안고 현장으로 달려 나가는 박영수 목사의 전도의 열정과 사명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전에서 조다윗 목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제3회 자유대한지킴이 선교축제

한국선교세계연맹, 일사비전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한국선교세계연맹(상임대표회장 강봉규 목사, 이하 한선연) 주최,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 마리아나 홀리선교회 주관 제3회 자유대한지킴이 선교축제가 지난 9월 3일(금) 오후 1시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 홀에서 열려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 지역체 함양과 복음전파를 위해, 깨쳐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바른 음주문화 회복을 위해 말쑥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강봉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출판인쇄위원장 홍기덕 장로의 대표기도, 연예위원장 이경혜 목사(마리아나홀리선교회장)의 성경봉독, 마리아나홀리선교회 중창단의 찬양, 한국선교세계연맹 상임대표회장 강봉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요 8:29-32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로 자유함'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기독교정신을 흔탁하게 하는 잘못된 영들의 준동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교다원주의와 세속화를 단호하게 배격하지 못하고 거룩성을 상실한 죄를 애용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전한 뒤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것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예배와 전도의 자유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서 한반도에 참된 평화



장 강봉규 목사의 임명장수여에 이어 강봉규 목사는 강령을 선포한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한선연은 △한반도에 복음의 문화토양을 쌓아 가는 데 노력을 경주한다 △기독교정신을 흔탁하게 하는 잘못된 영들의 준동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군관인 속에 파고들어 있는 퇴락한 음주문화를 복음으로 고쳐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한다 △실추되어진 목회윤리를 쇄신하여 이 땅에 예수 사람을 실현하는데 목숨을 다한다 △진실이 공의 되어 복음으로 다져진 언론을 민생 가운데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주신 민생환경을 복음으로 고쳐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한다 △이 모든 강령을 사랑으로 실천한다 고 강령을 선포했다. 전한배 목사의 연학소개, 엄영섭 장로(녹색환경감시단 총재)의 인사말, 고문 전용만 목사의 시국사, 고문 김중석 목사의 격려사, 자문위원 최귀석 목사의 축사, 고문 황준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곧바로 2부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이경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제2부 축하공연은 강은혜님의 기도, 양방원 양지연님의 오가리나리, 주 강은혜님의 선교무용, 이의진님의 시 낭송 & 모

노드라마, 서형석 정순옥님의 색소폰연주, 이준봉님의 국악전송, 한선연 마리아나홀리중창단의 피날레전양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강봉규 목사는 2007년 세계기독교금주운동본부 설립에 사회단체로 등록했으며, 2014년 한국선교세계연맹을 설립하여 '비전2030'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강 목사는 "한국선교세계연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사회 전반에 복음으로 다져진 애국 애족의 일념으로 한반도에 안정적인 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신정통치 국가로 우뚝 서 열방 가운데 본이 되는 국민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중심을 다 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전반적인 문화 속에 복음의 정신을 함양토록 복음 문화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며 관련 단체들을 규합해 복음의 역동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자유대한지킴이 선교축제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이란 주제로 한선연 주최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 마리아나홀리위임선교회 주관 태권도리더세계선교연맹, (사)녹색환경감시단 한국검정신문사 등이 협력하여 치러졌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옹골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담

- 영동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00 목사님은 해마다 감기로 인해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를 하고난 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입냄새도 사라져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 부산에 사는 권00 권사님은 풍치로 늘 음식 먹기도 불편했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하고는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다는 재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 전국사모단합대회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용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부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 8회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렘 33:3)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윤금자 -

주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렘 33:3)

일 자 | 2018년 10월 15일(월) ~ 17일(수) 2박 3일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대 상 | 예하성 산하 교회 담임목사님 및 부교역자 사모님들

등 록 비 | 없음

준 비 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개인용품, 간편한 복장, 신발(관광용)

※ 성막 견학 시에는 등산복 차림, 맨발은 불가함

문 의 | 회장 윤금자 사모(010-8616-0514)

총무 신명희 사모(010-5483-4005)

후원계좌 |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재무, 010-8372-0091)

2018 전국사모회 증경회장단

증경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대음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증경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직전회장



한정은 사모
(가평순복음교회)

고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2018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이정화 사모
(은혜와찬양교회)

1부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2부회장



이은숙 사모
(정읍순복음중앙교회)

총무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부총무



서수영 사모
(은혜충만교회)

서기



이정희 사모
(순복음은혜의강교회)

부서기



전희진 사모
(순복음은혜교회)

회계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부회계



조순자 사모
(순복음복된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2018년도 예하성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일정표

시간	요일	10월 15일(월)	10월 16일(화)	10월 17일(수)
07:00~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00~09:00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으로!	자유시간	자유시간
09:00~10:00		※ 집회장소 : 예루살렘성전 ※	관광 출발	경품권 추첨
10:00~12:00			세계성막복음센터 성막 견학	찬 양 폐회예배 강사 : 신재영 목사 (교단 총무)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5:00		접수 및 숙소 배정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람	새롭게, 활기차게! 사역의 현장으로!
15:00~15:30		찬 양		
15:30~17:00		개회예배 강사 : 조용목 목사님 (교단 정책위원장)		
17:00~18:00		지방회별 소개	저녁식사	
18:00~19:00		저녁식사	휴 식	
19:00~19:30		찬 양	특 강	
19:30~21:00		성령대망회 강사 : 임용재 목사 (교단 총회장)		
21:30~22:30		소모임 및 교제	소모임 및 교제	
23:00		취 침	취 침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한국 기독교, 한글로 소통하다 ①



1446년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자임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암글’, ‘이랏글’이라 불리며 무시당한 훈민정음은 갑오개혁 때 비로소 공식적인 나라 글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현대받고 있을 때 기독교는 한글만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 왔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한글’이 전파되며, ‘한글’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인과 관계를 가져왔다. ‘기독교’는 ‘한글’이라는 통로를 통해 민족에게 전파되었다.

한말, 더군다나 구식교육 즉 한문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에 있던 서민 대중이 새로운 전리인 기독교의 성경을 접하므로 심령의 구원을 얻는 기쁨과 더불어, 한글을 깨치며 처음으로 글눈을 뜨고서 지식과 개화의 거듭난 기쁨을 동시에 체험하니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뜻이 실현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복음전파는 한글로 소통하며 개막되었다. 1880년대 만주에서 시작된 존 로스의 ‘혜수성경전서’나 일본에서 쓰인 이수정의 현토 신약 성경이 다 한글을 사용하며 시작되었으니 한국 기독교의 첫 사업인 성경 보급이 근본부터 한글 운동의 시대를 열게 된 셈이다. 그 뒤에 한자를 섞어 쓴 이른바 국한문 성경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부 한자 지식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일 뿐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한글은 성경과 찬송가뿐만 아니라, 족속 음과 전도지 등에도 기독교의 복음전파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고 1895년 기산 김준근의 삽화와 함께 출판된 소설 ‘천로역정’ 등 기독교문학의 번역과

‘조선그리스도인 회보’, ‘혜수교회보’ 등 신문과 ‘신학 월보’, ‘신생’ 등 잡지를 내며 빠르게 대중 속으로 파고들며 확장되었다.

최초의 장로교공의회는 모든 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였다. 한글만으로도 넉넉히 모든 진리를 적어 내며, 한글만으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소통이 되며 오히려 편리하다는 생각이 선교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과 대중에게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기독교의 모든 인쇄물도 대부분 한글만으로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한국기독교는 한글의 보급을 위해 말보, 사전 등의 연구와 출판에 더 주력하였다. 그런 사례로 볼 것 같으면 1874년 프랑스 선교사 탈레 선교사의 ‘조선교회사’와 파리 외방선교회가 출판한 1880년 ‘한불사전’ 그리고 1877년 존 로스의 ‘조선어 첫걸음’은 한글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한글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1880년 언더우드와 ‘한영분법’과 1890년 ‘한어자전’ ‘은 한글 체계화의 기초가 되었고 이어 1893년 게일 선교사의 ‘한영자전’ 등은 한글 전파의 일익을 감당하였다.

그 당시 교회는 한글로 된 성경과 교과서 등 여러 한글책자의 출판을 통하여 민족을 계몽하고 근대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런 한글 운동으로 문맹을 퇴치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나 전도사들과 성도들은 신앙과 표현의 말쑥을 배우며, 글을 읽고 쓰는 방법까지 깨우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산간 벽촌의 기독교인들은 그 마을의 유식자로 말과 글의

지도자가 되어 갔다.

선교 초기 언더우드와 게일 선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들은 한글의 과학적인 면과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외에 알리려 노력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한글의 가치를 널리 세계에 번역 소개할 것만이 아니라 완고한 한학자들에게도 이를 긍정하게 만들었고, 일반 대중에게 이 글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깨우치게 하였다. 이렇게 한글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자리하게 되자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한글을 지키려는 마음을 길러주었다.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심리라 할 것이다.

한글 운동의 선구자로 상동교회 전역기 목사와 친구이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주시경 장로의 경우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기독교를 접하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에게 발탁되어 서재필·윤치호 등과 ‘독립신문’을 제작하였고, 상동교회에서 ‘조선어강습원’을 열어 한글을 보급했다.

또 한글이 15세기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19세기 근대에 사용하기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을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편본 ‘국어문법(國語文法)’이나 ‘말의 소리’는 국어 문장의 성분을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 최초로 구분도해(構文圖解)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근대 언어학의 용어를 손 우리말로 고안하여 이를 체계화해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한글 보급에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38년 이전까지는 ‘조선어’를 필수로 ‘일본어’를 병용토록 하였으나 그 이후 총독부가 ‘일본어’를 ‘국어’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우리 국어를 ‘조선어’라고 명명하며 일본어만 상용토록 하였다.

운한 것이냐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절대로 이런 현실과 동떨어지고 거짓 정보로 교육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편향적 서술에 대한 남달랐던 이유를 밝히고 당장 시정해 천주교든 개신교든 같은 분량으로 서술하길 바란다.

좌 편향된 역사학계와 수준 미달 집필자! 부실 출판사와 불공정한 검인정 기준!

학부로는 교육에 대한 불신과 염려로 학교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치우친 역사교육이 걱정이다.

한번 잘못 각인되면 바꾸지 않는 사고! 차라리 안 가르쳐 백지로 두고 싶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마련될 때까지 역사교육 중단을 요구한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교육부는 즉각 역사교육 편향 문제를 해결하라!

이슬람 46.1%, 기독교 3%·편향서술 역사교과서 폐기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한민국 역사교육 정막 큰 일이다. 역사 왜곡을 넘어 친북적이고 심각한 종교 편향까지. 목적과 의도가 없는 쓸 수 없는 수준의 책을 만들고 교과서란 이름으로 학생에게 주입하니 이것이 바로 세뇌 교육이고 국가 재난이 아닌가 한다.

국정 올바른 교과서를 내광개치새 집필기준으로 만든 교과서 민낯이 지난 9월 11일 ‘진실역사 교육연구회’ 발표로 알려지니 종교 편향성에 경악하면서 연구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진실을 어찌 알 수 있었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교과서의 종교 비중이 이슬람 46.1% 불교 19% 천주교 15.5% 힌두교 10.4% 정교회 6% 개신교 3%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

우리의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이고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은 기독교인데 갑자기 이슬람이 우리 국교라든 댔단 말인가?

가뜩이나 애들의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과목을 선택, 필수로 나누고 내용 분량 줄이기에 노력하며 그 중요하다는 수화조차 미적분을 빼고 기하를 없앤다고 해 걱정들인데... 또 정작 가르쳐야 할 한자 교육조차 교육 슬림화 대세 속에 유보 중인데..

왜 굳이 역사교과서에 우리와 상관도 없고 낯설기만 한 이방 종교, 이슬람을 이런 큰 비중으로 다룬 것인지는?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

특히 요즘 무슬림 불법 난민, 종교 폭력 등으로 이슬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현실에서 마치 이슬람 포교수단으로 교과서를 이용하고 거부감을 줄여 친화적 종교로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힘이 작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치울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 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 입 문 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사설

간절한 구국의 기도가 필요한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유엔에서 또 지그재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발언을 했다. 가시적인 제재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핵폐기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수 십 년 동안 핵 관련 발언과 행동을 보면 말만 무성했지 진정성 있는 행동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나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는 가운데 미북 정상간 약속한 핵폐기로 언제 될지정체 수해할 조간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이런 자리로 나온 것 자체도 유엔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26일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를 재확인 했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은 대북 제재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 당국이 평양에서 채택한 군사 합의서에는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조항이 많다. 이번 합의서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 간의 ‘군사적 평화’는 철저히 군사적 균형 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군사 합의는 철저한 상호주의와 상호 검증이 기본이다. 자칫 잘못해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면 감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 분야 합의는 철저히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상호 검증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동맹국 미국 측과 협의해 합의 내용을 시정하거나, 방어력 보완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군사 합의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 우려의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번 합의는 대부분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의 행동은 한·미 안보동맹보다 남북 군사 협력을 앞세우는 것으로 비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도 합의문에 핵과 관련하여 진전된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항상 해왔던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표명했을 뿐이다. 냉정해져야 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이 경제적인 지원에만 매달리면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일천이백만 기독교인들의 화해의 기도와 함께 간절한 구국의 기도가 필요한 때다.

동성애 에이즈 감염은 통계에 의한 것

한겨레신문은 9월 27일자 1면과 5면, 두 면에 걸쳐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였다”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여기에서 에스더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를 말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동성애 문제, 북한 구원 문제, 이슬람 문제 등을 놓고 기도하는 선교단체이다.

그런데 한겨레의 보도는 정상적인 선교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불명예스런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이를 극우 기독교 단체로 연결시키고, 그로 인하여 기독교 전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과연 한겨레가 분석했다는, 에스더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정말 가짜인가? 한겨레는 에스더가 만든 가짜 뉴스라며 거짓을 예시한다.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동성애 커플 거부 목사 징역형, 메르스·에이즈 결합 슈퍼바이러스 창궐,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 동성애 캐리커처 제작 거부미

국인 벌금 폭탄 등에 대한 것이다.

동성애 에이즈 감염은 올해 대한감염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0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자 1,474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했을 때, 양성 혹은 동성 간 성 접촉을 통하여 감염된 사람이 60%를 차지한다는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이성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34.6%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특히 18~29세에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71.5%였고, 18~19세의 경우에는 92.9%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있다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울 수 있는가? 이외의 예시 내용도 모두 사실을 근거로 한 내용임에도 한겨레는 기독교선교단체를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매도하였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곡과 표적 보도를 중지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사이트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뽐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한기총·대전·충남·충북·세종연합

미 스 바 기 도 회

나라위해 함께 울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에스라 10:1)

2018.10.14(주일) 오후 3:00

세종정부청사 호수공원

(세종 연기면 세종리 114-380)

한기총·대전·충남·충북·세종 기독교총연합회